

유비 논증(2017학년도 6월 모의고사) 풀이

이 지문은 각 문단이 가, 나, 다, 라, 마로 나뉘어 있다는 점에서 본 방법론에 직관적으로도 딱 들어맞는 지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지문들도 들어맞긴 하지만, 직관적이지는 않았다.)

지문의 소재 파악을 위해 1문단을 보면,

(가) 유비 논증은 두 대상이 몇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어떤 대상이 추가적 특성을 갖고 있음이 알려졌을 때 다른 대상도 그 추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하는 논증이다. 유비 논증은 이미 알고 있는 전제에서 새로운 정보를 결론으로 도출하게 된다는 점에서 유익하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과학에서 흔하게 쓰인다. 특히 의학적인 목적에서 포유류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동물 실험이 유효하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비판은 유비 논증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유비 논증의 정의가 나온다. 첫 문장부터 정의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 지문은 유비 논증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가) 유비 논증은 두 대상이 몇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어떤 대상이 추가적 특성을 갖고 있음이 알려졌을 때 다른 대상도 그 추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하는 논증이다. 유비 논증은 이미 알고 있는 전제에서 새로운 정보를 결론으로 도출하게 된다는 점에서 유익하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과학에서 흔하게 쓰인다. 특히 의학적인 목적에서 포유류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동물 실험이 유효하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비판은 유비 논증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유비 논증은 이미 알고 있는 것에서 새로운 정보를 도출하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한다. 또한 이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이 지문이 앞으로 어떤 사례를 다룸으로써 우리에게 유비 논증을 설명할 것인지를 제시했다. 동물 실험이 유효하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비판에 관한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제 1문단을 다 읽었고, 소재도 파악했고 앞으로 나올 내용도 대략 파악했다. 이제 문제를 보면,

20. (가)~(마)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 : 유비 논증의 개념과 유용성을 소개하고 있다. ○
② (나) : 동물 실험의 유효성 주장에 유비 논증이 활용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③ (다) : 동물 실험을 예로 들어 유비 논증이 높은 개연성을 갖기 위한 조건을 설명하고 있다.
④ (라) : 동물 실험 유효성 주장이 유비 논증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소개하고 있다.
⑤ (마) : 동물 실험 유효성 주장이 갖는 현실적 문제들을 유비 논증의 차원을 넘어서 살펴보고 있다.

매우 친절하게도 각 문단별 내용을 묻고 있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각 문단을 읽고 나서 한 선지씩 판단해주면 될 것이다. 우선

1문단에서 유비 논증의 정의를 알려주었고, 유비 논증이 유익하다고도 했으니 1번 선지는 옳은 선지이다.

나머지는 각 문단을 읽고 풀 것이니 21번 문제를 보면,

21.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유비 논증의 개연성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관련이 없는 새로운 대상이 추가될 때 높아진다.
② 인간은 자신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나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나 모두 유비 논증에 의해 안다.
③ 인간이 꼬리가 있는 실험동물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논증의 개연성을 낮춘다.
④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중대한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것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과 상관없이 알 수 있는 정보이다.
⑤ 동물 실험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는 인간과 동물의 고통을 공평한 기준으로 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추론 문제인데, 보통 추론 문제는 내용일치 문제와 비슷한데, 경우에 따라 약간의 추론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일단 선지들을 보니 지금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다. 유비 논증의 개연성에 대해서 모르고, 나머지 내용들도 아직 우리가 읽지 않은 것 같기 때문이다. (2번 선지는 어쩌면 바로 옳지 않은 선지임을 판단할 수도 있을 텐데, 일단은 판단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도 좋다.) 이 문제 또한 각 문단을 읽고 풀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게 좋을 것이다.

다음으로 22번 문제를 보면,

2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과 ㉡은 모두 인간과 동물이 기능적으로 유사하면 인과적 메커니즘도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② ㉠이 ㉡의 비판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동물이 기능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면 된다.
③ ㉡은 ㉠이 인간과 동물 사이의 기능적 차원의 유사성과 인과적 메커니즘의 차이점 중 전자에만 주목한다고 비판한다.
④ ㉡은 ㉠과 달리 인간과 동물이 유사하지 않으면 동물 실험 결과는 인간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⑤ ㉡은 ㉠과 달리 인간이 고통을 느끼는 것과 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것은 기능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은 3문단에, ㉡은 4문단에 있으므로 3문단을 읽은 후 일부 선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4문단을 읽은 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23번 문제를 보면, 23번은 보기 문제인데 ㉠~㉢가 2문단에 있으므로, 2문단을 읽고 나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다.

다음으로 24번 문제를 보면,

24.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맡기는 ② 가하는 ③ 주는 ④ 안기는 ⑤ 겪게 하는

어휘 문제의 경우에는 바로 해당 어휘를 보고 풀어도 되지만, 문제 풀이의 일관성을 지키고 싶다면 ㉠이 있는 마지막 문단을 읽은 후에 풀어도 된다. 본 교재에서는 마지막 문단을 읽고 풀 것이다.

이제 문제를 다 보았고, 어느 부분을 읽고 각 문제를 풀어야 할 지도 파악했으니 2문단을 보자. 짧으니 한 호흡에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나) 유비 논증을 활용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인간과 ㉠실험동물이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이나 독성 물질에 대한 실험동물의 ㉢반응 결과를 인간에게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추론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은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명백하고 중요한 이익을 준다고 주장한다.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의 의견이다. 유비 논증을 활용했는데, 인간과 유사성을 보유한 실험동물의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시킬 수 있어 동물 실험이 이익이 된다고 한다. 이러한 대응 순서(실험동물의 결과→인간에게 대응)도 유의미하기에 체크 해두면 좋다.

2문단을 빠르게 읽었으니, 문제를 보자. 우선 20번 문제의 2번 선지만을 보면,

② (나) : 동물 실험의 유효성 주장에 유비 논증이 활용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

이는 2문단의 첫 문장에서 ‘유비 논증을 활용’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한다고 했으니 옳은 선지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21번 문제를 보면,

21.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비 논증의 개연성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관련이 없는 새로운 대상이 추가될 때 높아진다.
- ② 인간은 자신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나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나 모두 유비 논증에 의해 안다.
- ③ 인간이 꼬리가 있는 실험동물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논증의 개연성을 낮춘다.
- ④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중대한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것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과 상관없이 알 수 있는 정보이다. △
- ⑤ 동물 실험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는 인간과 동물의 고통을 공평한 기준으로 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2문단에서 동물 실험에 유비 논증을 이용해서, 실험동물의 결과를 인간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동물 실험이 이익이라

고 했으니, ④번 선지가 살짝 거슬릴 수 있다. 물론 아직 판단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유효성이 있다는 것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의견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이다. 만약 그 사람들이 동물 실험의 이익을 인정한다면 ④번 선지는 옳은 선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일단은 세모표시를 해 두자. 나머지 선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

22번 문제는 아직 풀 수 없으니 23번 문제를 보면,

23. <보기>는 유비 논증의 하나이다. 유비 논증에 대한 윗글의 설명을 참고할 때, ㉠~㉢에 해당하는 것을 ㉣~㉥ 중에서 골라 알맞게 짝지은 것은? [3점]

<보 기>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개는 ㉠몹시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 있다. 나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그 개와 ㉡비슷하게 생긴 ㉢다른 개를 만났다. 그래서 이 개도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	㉡	㉢
①	㉣ ○	㉤	㉥
②	㉣ ○	㉤ ○	㉥ ○
③	㉤	㉣	㉥
④	㉤	㉤	㉥
⑤	㉤	㉤	㉤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앞서 1문단에서 보았던 유비 논증의 정의와 2문단의 내용을 ㉠~㉢용어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대응시켜볼 수 있다:

‘두 대상이 몇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는 성질이 확인된 상태’에서 (실험동물과 인간이 유사성 보유),

‘어떤 대상이 추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이 알려졌다’ 때(실험동물의 반응 결과),

‘다른 대상도 그 추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인간에게 안전하게 적용)

<보기>에서는 ㉣와 ㉤가 ㉤에 의해 ‘유사하다는 성질이 확인’된 것이고, 이 때 ‘추가적인 성질(㉤)을 가진’ 것은 ㉣이며 ‘그 성질이 적용(그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되는 대상은 ㉤이다. 따라서 ㉣의 추가적 성질→㉤에게 대응 이므로, 2문단의 내용과 비교해본다면 ㉣가 실험동물(㉠)이고 ㉤가 인간이다. 유사성(㉡)은 ㉤이고 반응 결과(㉢)는 ㉤이다. 따라서 답은 2번이다.

이처럼 정의와 물리량 중심으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 때는 지문 혹은 보기에서 주어진 예시와 정의 및 물리량 간의 ‘대응’을 잘 한다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이는 연습이 필요한데 유의미한 대응을 활용하게끔 하는 문제는 사실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출로 연습을 해야 한다.

24번은 아직 안 풀 문제이므로 3문단으로 넘어가면,

(다) 도출한 새로운 정보가 참일 가능성을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라 한다. 개연성이 높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간의 유사성이 커야 하는데 이 유사성은 단순히 비슷하다는 점에서의 유사성이 아니고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실험동물로 많이 쓰이는 포유류가 인간과 공유하는 유사성, 가령 비슷한 방식으로 피가 순환하며 허파로 호흡을 한다는 유사성은 실험 결과와 관련 있는 유사성으로 보기 때문에 자신들의 유비 논증은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인간과 꼬리가 있는 실험동물은 꼬리의 유무에서 유사성을 갖지 않지만 그것은 실험과 관련이 없는 특성이므로 무시해도 된다고 본다.

새로운 정의 및 물리량 정보가 나왔다. 유비 논증에서, 도출한 새로운 정보가 참일 가능성을 개연성이라고 하고, 그 개연성이 높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이 커야 한다. 즉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과 개연성은 비례 관계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다) 도출한 새로운 정보가 참일 가능성을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라 한다. 개연성이 높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간의 유사성이 커야 하는데 이 유사성은 단순히 비슷하다는 점에서의 유사성이 아니고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실험동물로 많이 쓰이는 포유류가 인간과 공유하는 유사성, 가령 비슷한 방식으로 피가 순환하며 허파로 호흡을 한다는 유사성은 실험 결과와 관련 있는 유사성으로 보기 때문에 자신들의 유비 논증은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인간과 꼬리가 있는 실험동물은 꼬리의 유무에서 유사성을 갖지 않지만 그것은 실험과 관련이 없는 특성이므로 무시해도 된다고 본다.

방금 제시되었던 정의와 관련된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포유류와 인간의 유사성은 실험 결과(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이기 때문에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꼬리가 있는 실험동물의 경우, 꼬리의 유무에서 유사성을 갖지 못하지만 실험과 관련이 없는 특성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고 한다. 이를 보면 개연성을 따질 때 실험과 관련이 있는 특성의 유사성만 따지는 것으로 보인다.

3문단도 다 읽었으니 일단 20번 문제의 3번 선지를 보면,

③ (다) : 동물 실험을 예로 들어 유비 논증이 높은 개연성을 갖기 위한 조건을 설명하고 있다. ○

개연성의 정의를 제시했고, 개연성이 높으려면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이 높아야 한다고 했고, 그에 관한 동물 실험의 예도 들었으니 옳은 선지이다.

그 다음으로 21번 문제를 보면,

21.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비 논증의 개연성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관련이 없는 새로운 대상이 추가될 때 높아진다. ×△
- ② 인간은 자신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나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나 모두 유비 논증에 의해 안다.
- ③ 인간이 꼬리가 있는 실험동물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논증의 개연성을 낮춘다. ×
- ④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중대한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것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과 상관없이 알 수 있는 정보이다. △
- ⑤ 동물 실험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는 인간과 동물의 고통을 공평한 기준으로 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우선 3문단에서 개연성이 높으려면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이 커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기에 ①번 선지는 옳지 않은 선지처럼 보인다. 단순히 새로운 대상이 추가된다고 해서 개연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 깊게 생각한다면, 유사성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이고 - 왜냐하면 비교 대상들은 유비 논증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알고 있으니까 - 그것과 새로운 정보가 관련이 있어야 하기에, 개연성은 이미 알고 있는 정보 - 유사성 - 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대상이 추가될 때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체크를 해 주되,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세모 표시도 옆에 같이 해주면 조금 더 심리적으로 안정된 풀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③번 선지는 3문단의 마지막 문장에 근거해서 옳지 않은 선지임을 알 수 있다. 무시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②, ⑤번 선지는 아직은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어 보인다. 고통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동물 실험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나왔기 때문에 22번 문제로 넘어가면,

2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인간과 동물이 기능적으로 유사하면 인과적 메커니즘도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 ② ㉠이 ㉡의 비판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동물이 기능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면 된다.
- ③ ㉡은 ㉠이 인간과 동물 사이의 기능적 차원의 유사성과 인과적 메커니즘의 차이점 중 전자에만 주목한다고 비판한다.
- ④ ㉡은 ㉠과 달리 인간과 동물이 유사하지 않으면 동물 실험 결과는 인간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 ⑤ ㉡은 ㉠과 달리 인간이 고통을 느끼는 것과 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것은 기능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머지 선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는 반면 ④번 선지는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한데, 왜냐하면 ㉠은 새로운 정보와 관련된 유사성

이 커야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유사하지 않으면 개연성이 낮으니 도출한 새로운 정보가 참일 가능성이 낮은 것이고, 그렇다면 새로운 정보를 인간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 달리’라고 적혀 있기에 이 선지는 옳지 않아 보인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약간의 추론이 요구되므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세모 표시를 해 두어도 괜찮을 것이다.

23번은 이미 풀었고 24번은 아직 안 풀 것이므로 4문단으로 넘어가자.

(라) 그러나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은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을 유비 논증과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한다. 첫째, 인간과 실험동물 사이에는 위와 같은 유사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기능적 차원에서의 유사성일 뿐이라는 것이다. 인간과 실험동물의 기능이 유사하다고 해도 그 기능을 구현하는 인과적 메커니즘은 동물마다 차이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데도 말이다. 둘째, 기능적 유사성에만 주목하면서도 막상 인간과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기능적 유사성에는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고통과 달리 동물의 고통은 직접 느낄 수 없지만 무엇인가에 맞았을 때 신음 소리를 내거나 몸을 움츠리는 동물의 행동이 인간과 기능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보고 유비 논증으로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말이다.

이제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의 의견, 그러니까 동물 실험이 유효하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이 제시된다.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한다고 하는데, 이 때 ‘두 가지 측면’에 표시를 해 놓은 것은 여기에 집중함으로써 ‘아, 이제 애네가 뭔가 비판을 두 번 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 내용을 좀 더 구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측면은 앞서 3문단에서 제시되었던 유사성은 기능적 차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인과적 메커니즘이란 것이 기능을 구현하는 것인데, 기능이 유사해도 인과적 메커니즘은 차이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한다. (이 때 인과적 메커니즘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져도, ‘아 그냥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기능을 구현하나 보네. 그리고 이게 기능이 같아도 동물마다 다를 수 있는가보네.’ 정도로만 생각해주면 된다.)

(라) 그러나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은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을 유비 논증과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한다. 첫째, 인간과 실험동물 사이에는 위와 같은 유사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기능적 차원에서의 유사성일 뿐이라는 것이다. 인간과 실험동물의 기능이 유사하다고 해도 그 기능을 구현하는 인과적 메커니즘은 동물마다 차이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데도 말이다. 둘째, 기능적 유사성에만 주목하면서도 막상 인간과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기능적 유사성에는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고통과 달리 동물의 고통은 직접 느낄 수 없지만 무엇인가에 맞았을 때 신음 소리를 내거나 몸을 움츠리는 동물의 행동이 인간과 기능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보고 유비 논증으로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말이다.

두 번째 측면이 나오고 있다. 동물 실험이 유효하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능적 유사성을 좋아하면서도 인간과 실험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기능적 유사성에는 주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고통과 ‘달리’ 동물의 고통은 직접 느낄 수 없다. (지문에서나 선지에서나 ‘~와 달리’ 라는 말은 매우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 선지에서는 서술 내용이 ‘~와 달리’ 와 묶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인간은 자신의 고통을 직접 느낀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은 유비 논증으로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는 집중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이제 4문단도 다 읽었으니, 우선 20번 문제의 4번 선지를 보면,

④ (라) : 동물 실험 유효성 주장이 유비 논증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소개하고 있다. ○

4문단에서는 동물 실험 유효성 주장에 대한 비판을 소개하는데, 그 비판의 내용이 유비 논증을 할 때 사용된 유사성이 적절하지 않다. 라는 내용 하나랑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유사성에는 주목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므로 유비 논증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옳은 선지이다.

후에 21번 문제를 보면,

21.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비 논증의 개연성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관련이 없는 새로운 대상이 추가될 때 높아진다. ×△
- ② 인간은 자신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나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나 모두 유비 논증에 의해 안다. ×
- ③ 인간이 꼬리가 있는 실험동물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논증의 개연성을 낮춘다. ×
- ④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중대한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것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과 상관없이 알 수 있는 정보이다. △
- ⑤ 동물 실험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는 인간과 동물의 고통을 공평한 기준으로 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

우선 ②번 선지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앞서 4문단을 읽을 때 생각했듯이, 인간은 자신이 직접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자신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유비 논증에 의해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냥 직접 느끼니까 아는 것이다. 또한 ⑤번 선지는 4문단 뒤쪽에 동물의 고통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고통을 느낀다는 유사성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옳은 선지라고 볼 수 있다. 물론 확실한 근거가 나온 것은 아니기에 일단은 넘어가도 괜찮을 것이다. 여기서는 동그라미와 세모 표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이는 ‘5번 선지가 맞는 것 같긴한데 내 추론일 뿐이고 아직 100% 확실한 근거가 있진 않아’ 라는 의미 정도로 볼 수 있다.

4문단에서 ㉠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22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인간과 동물이 기능적으로 유사하면 인과적 메커니즘도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
- ② ㉠이 ㉡의 비판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동물이 기능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면 된다. ✕
- ③ ㉡은 ㉠이 인간과 동물 사이의 기능적 차원의 유사성과 인과적 메커니즘의 차이점 중 전자에만 주목한다고 비판한다. ○
- ④ ㉡은 ㉠과 달리 인간과 동물이 유사하지 않으면 동물 실험 결과는 인간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 ⑤ ㉡은 ㉠과 달리 인간이 고통을 느끼는 것과 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것은 기능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①번 선지에서, 우리는 ㉠이 인과적 메커니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은 기능이 유사해도 인과적 메커니즘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읽었기 때문에 옳지 않은 선지임을 알 수 있다.

②번 선지는 읽고 바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인간과 동물이 기능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것을 ㉠이 보이면 ㉠의 주장에는 모순이 생긴다는 점은 알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고 볼 수 있다.(아니면 잘 모르겠다면, 일단 세모 표시를 해 두자. 다른 것들이 답이 아니라면 이게 답이 될 것이다.)

또한 ③번 선지는 ㉡이 비판한 첫 번째 측면에 해당하기 때문에 옳은 선지이고, 이것이 답이 될 것이다.

⑤번 선지도 ①번 선지와 살짝 비슷하게, ㉠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의 비판 중 두 번째 측면에 의해 이 선지가 옳지 않다는 것은 알 수 있다.

따라서 답은 3번이고, 이에 따라 앞서 애매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4번(과 2번)은 답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 넘어가면 된다.

이제 마지막 문단을 보자.

(마) 요컨대 첫째 비판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 낮다고 지적하는 반면 둘째 비판은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서 동물 실험의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인간과 동물 모두 고통을 느끼는데 인간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은 해서는 안 되고 동물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윤리성의 문제도 일관되지 않게 쓰인 유비 논증에서 비롯된 것이다.

4문단에서 제시된 두 가지 측면의 비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미 대부분의 문제들을 해결하긴 했지만, 만약 제때 선지를 판단하지 못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해도 이 문단을 본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읽은 부분에서 첫째 비판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20번 문제의 4번 선지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다.

(마) 요컨대 첫째 비판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 낮다고 지적하는 반면 둘째 비판은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서 동물 실험의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인간과 동물 모두 고통을 느끼는데 인간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은 해서는 안 되고 동물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윤리성의 문제도 일관되지 않게 쓰인 유비 논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간에게는 실험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면서 동물에게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한다. 이를 통해 21번 문제의 5번 선지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다. 결국 유비 논증을 이용한 동물 실험의 유효성에 대한 주장은, 일관되지 않게 쓰인 유비 논증 때문에 윤리성의 문제를 낳았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된다.

이제 글을 다 읽었으니 남은 문제 및 선지들을 판단하면 된다.

우선 어휘 문제를 빠르게 판단하고 가자.

24.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 맡기는 ② 가하는 ③ 주는 ④ 안기는 ⑤ 꺾게 하는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이므로, 선지에 있는 단어들을 실제로 ㉠과 바꿔서 읽어봤을 때 자연스럽게 못한 단어를 고르면 된다. 이 문제의 답은 1번이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한다.

20번 문제의 5번 선지를 보면,

⑤ (마) : 동물 실험 유효성 주장이 갖는 현실적 문제들을 유비 논증의 차원을 넘어서 살펴보고 있다. ✕

동물 실험 유효성 주장이 갖는 현실적 문제는, 5문단에 따르면 윤리적 문제이다. 이 때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일관되지 않게 쓰인 ‘유비 논증’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실적 문제를 유비 논증의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지 유비 논증의 차원을 넘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지 않은 선지이며, 이 문제의 답이다.